

[2026] 한주간 쉽게 보는

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

Jeju News Keyword Trends

No. 113



Contents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소리, 헤드라인제주

※ 대상 기간 : 2026.10.07~2026.10.13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정치·행정	1
▪ 경제·관광	2
▪ 지역·사회	2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3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7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10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공항(갈등), 유치(공공기관), 성과(사무감사), 투자(민선), 청년(일자리)
경제·관광	여행(페스타), 축제(은갈치), 관광객(연휴), 항공(국내선), 생산(양식)
지역·사회	차량(교통), 학생(학습권), 구조(철거), 건강(의료), 경기(선수)

※ 분석 기간 : 26.10.07.~26.10.13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정치·행정	공항(갈등)	- 제2공항 갈등조정기구 '투 트랙' 운영 선회 - 협의회 방침 변경, 행감서 '오락가락' 질타 - 환경영향평가 공정성 논란...위원장 사퇴 촉구
	유치(공공기관)	- 한국공항공사 본사 이전 최적지 논리 제시 - 마사회 유치전 가열...도의회 차별화 전략 주문 - '글로벌 AI 허브' 유치 전담팀 구성
	성과(사무감사)	- 복권기금 성과평가 하락...내년 240억원 감액 - 운용펀드 성과평가 미흡...의무투자 이행 65% - 보조금 성과평가 30% '강제할당' 논란
	투자(민선)	- 민선 9기 공약에 9조7576억원 투자 - 투자협약 기업 '간판만 제주로'...상주 0~1명 - 풍력 도민투자 이익공유, 한림풍력 모델로
	청년(일자리)	- 제주형 청년기본소득 설계에 청년 목소리 - 고립·은둔청년 회복 전담 '온바람' 개소 - 이전기업 네오플 청년직원과 정착 여건 논의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경제·관광	여행(페스타)	- 전국체전 연계 '제주 여행 페스타' 운영 - 영국 여행사·유튜버 초청...한·일 연계상품 개발 - 주한미군이 뽑은 최고 휴양지에 제주 선정
	축제(은갈치)	- 제7회 서귀포 은갈치 축제 서귀포항서 개최 - 광어대축제 3만5000명 방문...식중독 역학조사 - 탐동 원도심 '섬夜시즌' 야간 축제 예고
	관광객(연휴)	- 한글날 연휴 16만5000명 입도...국제선 증가 - 쇠소깍 '가문잔치' 재현...관광객이 일일 하객 - 관광객 맞는 K-뷰티 라운지 50개사로 확대
	항공(국내선)	- 9월 국내선 공급좌석 하루 8600석 감소 - 제주공항 국내선 지연 개선에 AI 도입 검토 - 제주항공 올해 탑승객 1000만명 돌파
	생산(양식)	- 제주 해조류 생산량 15년 새 97% 급감 - 양식장 2곳에 AI 순환여과 시스템 구축 - 콩알 없는 꼬투리...한경 콩 생산 급감 우려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지역·사회	차량(교통)	- 시속 30km 구간 차량 41.8% 과속 - 9년 만에 버스노선 개편...생활권 순환버스 검토 - BRT 정책자문단, 11월 정책 권고안 마련
	학생(학습권)	- 영주고 학생들, 공사 학습권 침해 대책 요구 - 제주고·제주여상 2027년 평준화고 전환 - 학교 개방과 안전 사이...출입 원칙 캠페인 마련
	구조(철거)	- 사일로 철거 중 구조물 낙하...581세대 정전 - 주택 철거 현장 콘크리트 붕괴...작업자 부상 - 마라도 해상 어선 화재·낚시객 구조 잇따라
	건강(의료)	- 정신건강의 날 국민포장 수훈·보건소 행사 - 제주 원주민, 이주민보다 담낭용종 유병률 높아 - 퇴원 후 돌봄 연계 협력병원 18곳으로 확대
	경기(선수)	- 전국체전 기간 종합경기장 주차장 주말 유료화 - 사이클 도로경기로 서귀포 녹산로 등 교통 통제 - 제주대 전국체전 승마경기장 개보수 완료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2026년 10월 7일~10월 13일 기간,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에 관한 제주지역 7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는 약 761건임
 - 정치·행정 분야 300건, 경제·관광 109건, 지역·사회 352건임
 - * 대상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공항(갈등), 유치(공공기관), 성과(사무감사), 투자(민선), 청년(일자리) 등으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정치·행정	공항 (갈등)	- 제2공항 갈등조정기구 '투 트랙' 운영 선회 · 위성곤 지사는 7일 민선 9기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중점평가사업 지칭 시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가칭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도 별도 운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도민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힘. · 지난달 8일 3대 방침 발표 때 두 협의회를 통합 운영하겠다고던 구상이 한 달 만에 바뀐 것으로, 도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이 늦어지고 두 기구의 참여 대상과 성격이 달라 법적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별도 운영을 택함.
---------------------	---------------------------	--

정치·행정	공항 (갈등)	- 협의회 방침 변경, 행감서 '오락가락' 질타 ·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방침이 설명 없이 통합에서 두 트랙으로 바뀌어 도민 신뢰를 잃었다고 비판했고, 이창흠 기후경제부지사는 브리핑 과정에서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함. · 찬성 단체가 불참 입장을 굳힌 가운데 도가 한쪽이 빠지더라도 협의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혀 '반쪽 협의회' 우려가 제기됐으며, 갈등 전문가와 성산지역 이장, 미래세대 등으로 협의회를 꾸리는 구성·운영안은 14일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임. - 환경영향평가 공정성 논란…위원장 사퇴 촉구 · 송영훈 의장은 12일 제13대 도의회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제2공항은 어느 한쪽 입장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출되면 그 동안 제기된 쟁점과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사하겠다고 밝힘. · 소관 상임위원장의 찬성 집회 참석으로 심사 공정성 우려가 제기된 점은 무겁게 본다고 밝혔으며,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3일 성명을 내고 양홍식 환경도시위원장의 사퇴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집·징계를 요구함.
	유치 (공공기관)	- 한국공항공사 본사 이전 최적지 논리 제시 · 제주도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앞두고 한국공항공사가 제주 공항 운영으로 쌓은 현장 역량과 제주의 미래 항공산업 기반을 연계하면 기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본사 기능을 실제 공항 운영과 잇는 최적지라는 유치 논리를 내놓음. · 도심항공교통(UAM) 기반시설과 교통관리 역량을 연계한 미래 항공교통 실증, 재생에너지 기반 공항시설 저탄소화, 스마트 공항 모델 발전 등을 강점으로 제시하고 청사 부지와 임시 업무공간 검토, 임직원 정착 지원 방안도 구체화함. - 마사회 유치전 가열…도의회 차별화 전략 주문 · 3000명의 고용 창출과 500억원의 지방세 확보가 기대되는 한국마사회 유치전에 경북 영천, 전남 담양·전북 순창, 전북 김제, 경기 이천·고양 등이 가세했고, 경상북도도 레저세액 50% 감면을 담은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킴. · 박안수 의원은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산업 중심지라는 원론적 논리만으로는 경쟁이 어렵다며 타 지자체의 재정 지원책을 분석한 차별화 방안과 마사회 이사회 접촉을 주문했고, 도는 이사회와 아직 접촉하지 않았다고 답함. - '글로벌 AI 허브' 유치 전담팀 구성 · 제주도는 국제기구의 인공지능 역량을 연결해 기후·보건·식량·일자리 등 개별 국가의 힘만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국제협력 거점인 '글로벌 AI 허브' 후보지 공모에 대비해 기후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실무 전담팀을 구성함. · 전담팀은 AI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국제협력, 정주여건, 동향·홍보, 실증모델 등 4개 분과로 꾸려지고 제주연구원 등이 자문에 참여하며, 정부는 14일 공청회를 거쳐 이달 중 공모를 진행하고 연내 입지를 확정해 2027년 개소할 계획임.

정치·행정	성과 (사무감사)	- 복권기금 성과평가 하락...내년 240억원 감액 ·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심 위원장은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복권기금 성과평가 순위가 2023·2024년 5위에서 지난해 9위로 떨어지면서 올해 79억원에 이어 내년에도 240억원이 감액될 처지라며 도의 성과관리 부실을 지적함. · 이 위원장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데도 받을 수 있는 재원마저 놓쳤다면 전담 인력 배치를 제안했고, 도는 5위 당시 전담하던 임기제 공무원이 퇴직한 뒤 전담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외부 점검과 컨설팅을 준비하겠다고 답함. - 운용펀드 성과평가 미흡...의무투자 이행 65% · 한권 의원은 7일 미래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가 운영하는 5개 펀드의 민간자본 레버리지가 11.91배로 산출되지만 이 수치가 좋은 성과인지 판단할 객관적인 비교·평가 기준이 없다며 성과평가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함. · 도 출자 펀드의 제주지역 의무투자 약정액 321억5000만원 가운데 실제 투자액은 209억원으로 이행률이 약 65%에 그쳤으며, 1조원 규모 미래성장펀드 추진에 앞서 기존 펀드의 성과와 한계를 먼저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짐. - 보조금 성과평가 30% '강제할당' 논란 · 이경심 위원장은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가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의 '미흡'과 '매우 미흡' 비율을 사전에 30%로 할당해 행정안전부 기준 15%의 두 배를 적용하면서 내용과 관계없이 좋은 사업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비판함. · 법정운영비 등 필수·의무적 보조 예산까지 할당하면 지원 중단이나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양제윤 기획조정실장은 평가 구조상 불이익 가능성을 인정하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도의회와 함께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함.
	투자 (민선)	- 민선 9기 공약에 9조7576억원 투자 · 제주도는 8일 '도민과 함께 공약실천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0개 분야 100개 공약사업, 337개 실천과제로 구성된 민선 9기 공약실천계획을 확정하고 2030년까지 9조7576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이는 민선 8기보다 2조 5946억원 많은 규모임. · 재원은 국비 3조7523억원, 도비 4조2168억원, 민자·융자 등 1조7885억원이며, 민생·안전과 기본사회·도민참여, 미래성장에 중점을 둔 12대 핵심공약에 임기 내 8020억원을 투입하고 이행상황을 도 누리집에 상시 공개할 방침임. - 투자협약 기업 '간판만 제주로'...상주 0~1명 · 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의 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와 투자협약을 맺고 '이전 완료'로 분류된 기업 6곳 가운데 5곳의 도내 근무자가 없거나 1명뿐인 것으로 확인돼, 본사 주소만 옮긴 '유령 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됨. · 일반 투자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사후 고용이나 도내 영업 여부를 제한할 수 없는 만큼 협약 건수가 아닌 도내 고용 인원과 실매출을 지표로 삼아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고, 도는 기한이 지나도 이전하지 않는 기업을 협약

정치·행정	투자 (민선)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답함. - 풍력 도민투자 이익공유, 한림풍력 모델로 · 위성곤 지사는 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풍력발전 공유화기금과 별개로 도민이 풍력발전 개발사업에 직접 투자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가난한 도민도 소외되지 않고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 모델로 제시된 한림해상풍력발전 사업에는 수원리와 귀덕2리 등 지역주민 1000여명이 협동조합이나 법인 등을 통해 총 300억원을 투자해 전력 판매 수익의 일부를 분배받고 있으며, 도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임.
	청년 (일자리)	- 제주형 청년기본소득 설계에 청년 목소리 · 제주도는 공개모집 청년 30명과 청년참여기구 소속 10명 등 도내 청년 40명이 참여한 '제주형 청년기본소득' 연속 토론회를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네 차례 열었으며, 청년들은 일자리 부족과 불안정한 소득, 주거비 부담을 주요 어려움으로 꼽음. · 청년들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지원과 일자리·교육·교통·돌봄 여건 마련을 함께 제안했고 재정 부담 우려도 나왔으며, 도는 운영 기준을 검토하고 청년 자립패키지와 연계 방안과 지원 대상·금액·지급 방식을 구체화할 방침임. - 고립·은둔청년 회복 전담 '온바람' 개소 · 제주도는 고립·은둔청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발굴부터 상담, 일상 회복, 취·창업 지원까지 단계별로 돕는 전담기관 '제주청년미래센터 온바람'을 12일부터 운영하며, 고립 정도와 개인별 상황을 진단해 1대1 사례관리를 제공함. · 지원 프로그램은 온라인 소통, 초기상담과 개인·집단·방문상담, 가족 교육·상담, 자기이해와 일상 회복 지원, 소규모 활동과 봉사, 진로탐색·일경험 연계 등 6단계로 운영되며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족 지원도 병행함. - 이전기업 네오플 청년직원과 정착 여건 논의 · 위성곤 지사는 6일 제주시 노형동 (주)네오플 본사를 찾아 제주로 본사를 이전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온 기업을 격려하고, 청년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주거·교통 등 생활 여건 개선과 정보기술 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함. · 청년 직원들은 자녀 진료와 대중교통, 이주 초기 생활정보 등 정착 과정의 어려움을 전했고, 위 지사는 이주민 정보 플랫폼 구축을 제안하며 청년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함.

- 경제·관광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여행(페스타), 축제(은갈치), 관광객(연휴), 항공(국내선), 생산(양식) 등으로 나타남



[그림 2] 경제·관광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경제·관광	여행 (페스타)	- 전국체전 연계 '제주 여행 페스타' 운영 ·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와 연계해 16일부터 24일까지 '가을 제주를 가장 제주답게 즐기는 시간'을 주제로 가을시즌 제주 여행 페스타를 운영해 선수단과 관광객이 경기장 밖 제주 곳곳을 여행하도록 유도함. · 전국체전 경기장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여행 안내소 '찾아가는 웰컴스테이션'과 싱잉볼 명상, 바레 운동 등 '마인드 리커버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4일에는 제주시 월령포구에서 '가을 힐링 라이브 공연'을 열 예정임. - 영국 여행사·유튜버 초청...한일 연계상품 개발 ·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한국관광공사 런던지사와 함께 5일부터 7일까지 영국 주요 4개 여행사와 대한항공, 일본정부관광국(JNTO) 관계자 등 7명을 초청해 한국과 일본을 연계한 여행상품 개발을 위한 팸투어를 진행함. · 참가자들은 성산일출봉과 주상절리대 요트 투어,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등을 둘러보며 구미주 관광객이 선호하는 체험 요소의 상품성을 점검했고, 공사는 구독자 198만 명의 영국 여행 크리에이터 'Fun For Louis'의 콘텐츠 제작도 지원함.
-------	-------------	---

경제·관광		- 주한미군이 뽑은 최고 휴양지에 제주 선정 · 제주가 미국 군사 매체 '스타스 앤 스트라이프스'가 주관한 베스트 오브 더 퍼시픽 독자 투표에서 주한미군 장병과 군무원, 가족들이 직접 뽑은 '최고의 국내 휴양지'로 선정돼 13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상장을 받음. · 제주관광공사는 지난해 주한미군 20명을 초청한 '레클리스 팸투어'와 '제주와의 약속' 캠페인 등 교류 활동을 이어왔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주한미군 커뮤니티와의 관광교류를 확대하고 사계절 관광 콘텐츠를 꾸준히 홍보할 방침임.
	축제 (은갈치)	- 제7회 서귀포 은갈치 축제 서귀포항서 개최 ·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이 주최·주관한 '제7회 서귀포 은갈치 축제'가 8일부터 10일까지 서귀포항 동부두 일원에서 열려 제주 은갈치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했으며, 개막식에는 어업인과 도민, 관광객 등 500여명이 참석함. · 축제 기간 서귀포수협 위판장의 은갈치 새벽 경매장 체험과 현장 경매체험, 소라낚시 체험 등이 운영되고 수산물을 최대 30% 할인 판매하는 소비촉진 행사도 열렸으며, 위성곤 지사는 출어부터 판매까지 뒷받침하겠다고 밝힘. - 광어대축제 3만5000명 방문…식중독 역학조사 · 제주어류양식수협이 주최한 '제9회 제주광어대축제'가 9일부터 11일까지 열려 도민과 관광객 약 3만5000명이 찾았으며, 광어회와 초밥 등을 합리적 가격에 선보인 '착한 먹거리 축제'와 광어·도다리 맨손잡기 체험 등이 호응을 얻음. · 주최 측은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가의 판로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으나, 일부 방문객이 광어회와 초밥 등을 먹은 뒤 구토·설사 증상을 호소해 13일 기준 20명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섬. - 탐동 원도심 '섬夜시즌' 야간 축제 예고 · 제주도와 제주도관광협회는 원도심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입과 인근 상권 활성화를 위해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제주시 탐동광장 일원에서 '2026 원도심 야간여행 섬夜시즌' 축제를 개최할 예정임. · 첫날에는 탐동광장에서 동문시장과 칠성로를 거쳐 돌아오는 '섬夜 나이트워크'가 선착순 2000명 규모로 열리고, 가수 소유와 장민호의 공연에 이어 초대형 불꽃놀이가 펼쳐지며 상권 소비 영수증 이벤트도 운영될 예정임.
	관광객 (연휴)	- 한글날 연휴 16만5000명 입도…국제선 증가 · 제주도관광협회는 8일부터 11일까지 한글날 연휴에 관광객 16만5000명이 제주를 찾아 지난해보다 0.6% 늘 것으로 전망했으며, 국내선 이용 입도객은 13만5100명으로 1.1% 줄고 국제선 이용 입도객은 2만9900명으로 9.3%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국내선 항공 공급좌석은 지난해보다 6.6% 줄어든 반면 국제선은 20.1% 늘어 144편이 운항하고 국제선 항공 이용객은 56.8% 늘 것으로 보이며, 크루즈 3편도 약 6800명을 태우고 입항할 예정으로 국내선 감소·국제선 증가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 쇠소깍 '가문잔치' 재현…관광객이 일일 하객 · 하효살롱협동조합은 연휴 기간인 9일과 10일 서귀포시 쇠소깍 일대에서 친척과 이웃이 모여 혼례를 준비하던 제주 고유의 공동체 혼례 문화 '가문잔치'를 되살린 '2026 가문잔치 & 플리마켓'을 마련하고 방문객을 '일일 하객'으로 맞

경제·관광	관광객 (연휴)	음. · 첫째 날은 서귀포권역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하는 플리마켓과 만들기 체험, 둘째 날은 혼례 본예식과 돛과기·메밀국수 나눔으로 꾸며지며,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고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도 넓히는 자리로 기획됨. - 관광객 맞는 K-뷰티 라운지 50개사로 확대 · 제주도는 'K-뷰티 수출 거점' 사업과 연계해 제주시 칠성로의 체험형 뷰티라운지 '인뷰티풀 제주'를 '제주 K-뷰티 글로벌 라운지'(가칭)로 확대 개편하고, 국내외 관광객과 만날 유망 화장품 기업 20개사를 19일까지 모집함. · 기초 스킨케어 중심의 현재 30개사에서 50개사로 입점 규모를 늘리고 모집 규모의 80%는 도내에 본사나 지사를 둔 기업으로 선정하며, 선정 기업은 브랜드당 최대 5개 품목을 입점해 개별 제품 판매액의 85% 수준을 정산받음.
	항공 (국내선)	- 9월 국내선 공급좌석 하루 8600석 감소 · 항공정보포털시스템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9월 제주공항 국내선 공급 좌석은 242만3728석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7% 줄어 하루 평균 8633석이 감소했으며, 하계 운항기간 이후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감. · 공급 축소로 여객도 204만9281명으로 9.8% 줄었고 제주~김포 노선 운항은 261편 감소했으며, 9월 이후 내국인 관광객까지 눈에 띄게 줄면서 25일부터 시작되는 항공사별 동계 운항기간의 공급석 확대 여부에 관광업계의 관심이 쏠림. - 제주공항 국내선 지연 개선에 AI 도입 검토 · 지난해 제주공항 국내선 운항편 12만2574편 가운데 3만1821편이 지연돼 4대 중 1대꼴로 정시 운항을 하지 못했으며, 국내선 지연율 25.96%가 국제선 15.91%보다 10%p 이상 높아 주기장과 유도로 혼잡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 · 한국공항공사는 1억원을 들여 김해·제주공항 지상 이동시간 예측 정확도 개선 연구 용역을 진행하며, 인공지능 기반 예측 모델과 영상 인식 기술을 활용해 공항협동운항관리시스템(A-CDM)의 목표시각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함. - 제주항공 올해 탑승객 1000만명 돌파 · 제주항공의 올해 1~9월 탑승객은 국내선 364만2300여 명, 국제선 648만6200여 명 등 총 1012만8500여 명으로 국적 저비용항공사 중 가장 빠르게 1000만명을 달성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1%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함. · 증편과 신규 취항으로 공급을 늘린 일본 노선 탑승객이 29.1%, 중국 노선이 34.1% 증가하며 성장을 이끌었고 평균 탑승률은 91%였으며, 회사 측은 고유가·고환율로 여행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중단거리 노선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함.
	생산 (양식)	- 제주 해조류 생산량 15년 새 97% 급감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8일 발표한 현안 연구에 따르면 제주 연근해 해조류 생산량은 2010년 5155t에서 2025년 154t으로 97% 감소했으며, 우뚝가사리는 99.4%, 톳은 95.7% 줄고 모자반류는 최근 수년간 거의 집계되지 않음. · 바다숲이 흔들리며 전복류와 오분자기 생산량도 98% 이상 줄고 마을어업 총 수입은 2015년 246억원에서 2020년 120억원으로 51.2% 감소했으며, 서귀포 보목 앞바다의 해조류가 줄어든 암반에서는 열대·아열대성 돌산호 5종이 확인됨.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지역·사회	차량 (교통)	- 시속 30km 구간 차량 41.8% 과속 ·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교통체계(ITS)로 수집한 상반기 교통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과속경보시스템이 설치된 4곳을 지난 차량 197만792대 가운데 41.8%인 82만4285대가 제한속도 시속 30km를 넘긴 것으로 나타남. · 제한속도 초과 비율은 2월 38.7%에서 6월 45.9%로 높아졌고 스마트횡단보도 25곳의 정지선 위반 계도는 10만4767건으로 서귀포초교 앞이 가장 많았으며, 자치경찰단은 분석 결과를 신호 운영과 교통안전 대책 등에 활용할 계획임. - 9년 만에 버스노선 개편...생활권 순환버스 검토 · 제주도는 준공영제 도입 이후 9년 만에 버스 노선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용역비 3억6400만원, 수행 기간 12개월의 '대중교통 노선체계 재정립 및 실행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사업자 선정 절차에 들어감. · 용역은 '간선-순환-수요응답' 교통의 역할과 연계체계를 재정립하고 주민이 집 근처 마을 안길에서 탑승하는 생활권 순환버스 도입을 검토하며, 연간 1200억원이 넘는 준공영제 재정 지원 부담도 용역 추진의 배경으로 꼽힘. - BRT 정책자문단, 11월 정책 권고안 마련 · 제주도는 교통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주민자치위원장, 대학 총학생회장 등 13명으로 '제주 BRT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운행 중인 1단계 구간과 최근 확정 고시된 2단계 구간의 정류장 형태를 포함한 운영 전반을 점검함. · 자문단은 섬식정류장과 양문형버스 등 주요 쟁점의 대안을 비교하고 전문가 설문조사와 노선 주변 도의원·운수업체·상가·학생 대표 면담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며, 매주 정기회의를 거쳐 11월까지 정책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임.
	학생 (학습권)	- 영주고 학생들, 공사 학습권 침해 대책 요구 · 영주고 학생자치회는 8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505명이 참여한 실태조사에서 74.7%가 공사 소음·진동으로 수업과 시험에 지장을 받았다고 답했다며, 수업 중 소음 공사 중단과 대형차량 통행 제한 등을 요구함. · 학교 측은 14일까지 실질적 지원 방안이 없으면 공사 중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JDC는 시험기간 공사 중지 등 저감조치를 해 왔으며 상생협의체를 통해 교육환경 개선과 피해보상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힘. - 제주고·제주여상 2027년 평준화고 전환 · 제주도교육청은 고교체제 개편에 따라 제주고와 제주여상(사라고)을 2027년 3월부터 평준화고로 전환하고 제주미래고를 특성화고로 개교하며, 8일 중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입전형 변화를 안내하는 2차 설명회를 개최함. · 제주고는 과학중점학교, 사라고는 AI중점학교로 운영되고 학교당 4년간 총 4억원 지원과 대학입학지원관 전담 배치 등이 약속됐지만, 설명회에서는 교원 배치와 기존 특성화고 학생과의 공존 등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이어짐. - 학교 개방과 안전 사이...출입 원칙 캠페인 마련 · 제주도교육청과 제주소통협력센터는 10일 '2026 제주생활공론' 네 번째 모임을 열어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세 차례 논의를 거쳐 만든 학교 출입 안전 캠페인 포스터 4종을 공유하고, 개방형 학교의 출입 원칙을 알리는 방안을 논의함.

지역·사회	학생 (학습권)	· 지난 6월 도내 한 초등학교 교실에 외부인이 침입한 사건을 계기로 출입 통제 강화 요구가 제기된 가운데 공론에서는 관광객의 수업 중 촬영 등 일상적 출입 문제도 거론됐으며, 교육청은 의견을 후속 정책과 캠페인에 반영할 계획임.
	구조 (철거)	- 사일로 철거 중 구조물 낙하...581세대 정전 · 8일 오후 5시52분께 제주시 한림읍의 한 사료공장에서 사료 저장탱크인 사일로로 철거하던 중 크레인과 구조물을 연결한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면서 구조물이 떨어져 인근 고압전선과 통신선이 끊기고 전신주 1대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함. · 이 사고로 차량 2대와 인근 클린하우스 일부가 파손되고 주변 581세대에 정전이 발생해 약 5시간 만에 복구됐으며, 관계 당국은 와이어로프가 끊어진 원인과 크레인 작업 과정,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음. - 주택 철거 현장 콘크리트 붕괴...작업자 부상 · 12일 오전 10시15분께 제주시 연동 삼무공원 인근 주택 철거 현장에서 건물 대문 상판 콘크리트 구조물이 무너져 작업 중이던 중국 국적 40대 남성이 깔리는 사고가 발생해, 한림 사료공장 사고에 이어 철거 현장 사고가 잇따름. ·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오전 10시29분께 구조물에 깔린 작업자를 구조했으며, 작업자는 왼쪽 쇄골 등을 다쳐 구급대의 응급처치를 받은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음. - 마라도 해상 어선 화재·낙시객 구조 잇따라 · 8일 오전 8시37분께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약 41km 해상에서 조업하던 여수선적 40t급 저인망 어선 기관실에서 불이 났으나, 선원들이 초기에 자체 진화하고 승선원 7명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어 인명피해는 없었음. · 해경 구조대가 배수펌프와 소화기 등을 들고 승선해 잔존 화재 위험을 제거했으며, 11일에는 마라도 신작로 방파제 인근에서 낙시 중 바다에 빠진 30대 관광객을 마라전담의용소방대원들이 구명환과 로프로 신속히 구조함.
	건강 (의료)	- 정신건강의 날 국민포장 수훈 보건소 행사 · 강지연 연강의료재단 연강참병원 이사장은 8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에서 제주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통합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포장을 받음. ·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10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앱 '워크온'을 활용한 '내 마음 마주해요' 챌린지를 운영하고, 서귀포보건소는 26일 이호선 교수 토크쇼와 건강 체험으로 구성된 '나를 지키는 삶의 내공' 행사를 열 예정임. - 제주 원주민, 이주민보다 담낭용종 유병률 높아 · 제주대학교병원 김영규 외과 교수와 권오성 의료정보과 박사 공동 연구팀이 건강검진 성인 1만5219명을 분석한 결과, 제주 출생자의 담낭용종 유병률은 10.6%로 이주민 9.0%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 · 연구팀은 제주 원주민에서 비만과 지방간 비율도 높았으며 해산물 위주에서 고지방·육류와 패스트푸드 중심으로 바뀐 식습관과 대사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으며, 결과는 국제학술지 'Journal of Clinical Medicine'에 게재됨. - 퇴원 후 돌봄 연계 협력병원 18곳으로 확대 · 제주도는 협력 병원이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찾아 행정시 통합돌봄과에

지역·사회	건강 (의료)	의뢰하면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워 서비스를 연결하는 '퇴원환자 안심재가복지지원사업'의 협력 의료기관을 2024년 9월 14곳에서 18곳으로 늘림. · 병원에서 행정시로 의뢰된 퇴원환자는 2024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252명이며, 올해 4월 시작한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영양·가사 지원과 병원·관공서 동행을 제공해 8월 말까지 102명이 서비스를 받음.
	경기 (선수)	- 전국체전 기간 종합경기장 주차장 주말 유료화 · 제주시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기간인 16일부터 22일까지 평소 주말과 공휴일에 무료 개방하던 제주종합경기장 부설주차장을 선수단 이동 지원과 주차질서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료 운영하되, 선수와 운영요원은 무료로 이용하도록 함. · 올해 1~8월 입·출차 기록 분석 결과 주말 최대 포화율이 56.3%로 평일 21.7%의 2배를 넘은 데 따른 조치로, 대회 기간 종합경기장에서는 8개 종목 경기에 선수 3979명과 운영요원 574명 등 45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임. - 사이클 도로경기로 서귀포 녹산로 등 교통 통제 ·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사전경기로 열리는 사이클 도로경기로 14일부터 16일까지 서귀포시 표선면 녹산로와 번영로, 서성로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이 경기 시간에 통제되며, 제주도는 원활한 경기 운영과 선수 안전을 위해 협조를 당부함. · 도로독주 경기가 열리는 1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는 수망교차로~생기골교차로 400m 앞 등이 전면 통제되고, 15~16일 개인도로 경기 때는 일부 구간을 통제한 뒤 선수단이 통과하면 차량 통행이 재개될 예정임. - 제주대 전국체전 승마경기장 개보수 완료 · 제주대학교는 16일부터 18일까지 교내 말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에서 12년 만에 제주에서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승마경기'를 개최하며, 전국 17개 시·도에서 최정상급 명마 150여 두와 대표 선수단, 관람객들이 찾을 예정임. · 센터는 선수단과 마필이 최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격 바닥 평탄화와 마방 환경 개선, 동선 분리 등 경기장 개보수를 마쳤으며, 제주 청정 특산물 홍보부스와 공예 체험, 선수 응원 메시지 부스도 운영할 계획임.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이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